

트럼프 “이란 지도자 희망한 모든 사람 결국 죽는다”

對이란 공격에 “아주 잘하고 있다...10점 만점에 15점” “미친사람 핵무기 가지면 나쁜 일”...북핵 적용 언급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폭사한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 폭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

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잠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닷새째에 접어든 대(對) 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으며, 그들의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년 동안 그들(이란)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왔고, 우리는 크게 지지받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우리도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미국이 이란과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자신의 첫 임기였던 2018년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지도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6월 자신의 명령으로 진행된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을 언급,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마련된 이란 공격 관련 상황실에서 회의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

AFP

그는 특히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온 북한에

도 적용될 수 있는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미국, 세계대전 후 잠수함 어뢰 첫 사용

1945년 8월 일본 마지막

미군이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 선박을 침몰시키면서 중동전쟁의 긴장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

안전할 것으로 인식되는 공해상에서 단행된 대담한 군사작전에 국제사회는

경악하지만 미군은 자국의 전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자국 해군 잠수함이 스페인 근방 인도양 해역에서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에 어뢰를 발사해 격침시켰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작전에 투입된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해군 잠수함이 실전에서 어뢰를 사용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80여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해군 역사 유산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 해군 잠수함이 적 선박에 마지막으로 어뢰를 발사한 것은 1945년 8월 14일이었다.

당시 미국 해군의 토스크(Torsk)호가 일본군의 750급 초계호위함 CD-13을 어뢰로 격침한 바 있다.

미군 잠수함이 세계대전이 끝난 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상 목표물을 공격한 경우는 그간 종종 있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호위함을 어뢰로 격침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공격은 4일에 이뤄졌으며 어뢰 한 발이 이리스 데나의 배고물(선미) 아래에서 폭발해 커다란 물기둥이 치솟는다.

수면 위로는 이리스 데나의 좌현 선미

부분을 따라 선체가 찢어지는 것이 목격됐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해군 잠수함의 주력 어뢰인 ‘마크-48’ 중어뢰가 쓰였다고 밝혔다.

1972년에 첫 버전이 도입된 이 어뢰의 최신 버전은 소나를 활용해 표적을 포착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서 폭발하며, 폭발력은 TNT로 환산시 약 230kg다.

이 어뢰가 폭발하면 엄청난 분량의 기체 거품이 발생해 위로 치솟으며 표적 선

박의 용골(선박 하단 중앙부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배의 중심 축)에 금속 피로를 유발해 이를 부러뜨린다.

어뢰에 맞은 배는 쪼개져서 급속히 침몰하는 경우가 흔하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격침을 “조용한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덴 케인 대장은 어뢰가 “즉각적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